제 8강 선하기 때문에 아름다운가 아름답기 때문에 선한가?

※ 윤리학의 근본 문제

1. 왜 윤리적이어야 하는가?

1) 동정심 때문에

2) 행복을 위하여

3) 즐거움(쾌락)이 곧 좋은 것(선)이므로

4) 의무이기 때문에

2. 도덕(moral)과 윤리(ethic)의 개념

2.1 '도덕적'이라는 말의 유래 및 전개

- 라틴어 mores('습속'을 의미)에서 유래: 인간이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가지게 된 예절이나 삶의 양식을 의미

- mos: 모든 생명체가 삶의 공간에서 거주하는 방식

- nomos: '인간적' 행위를 통해서 세워지는 질서

2.2 자연(physis)과 규범(nomos)

- 근대 이전에는 '자연적'과 '규범적(도덕적)'이라는 말이 구분되지 않았다. 즉,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삶의 질서가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 소토아 학파: 자연적인 것이 이성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이 좋은 것이며, 따라서 자연적인 것은 좋은 것이다.

2.3 '도덕적'과 '윤리적'

- 칸트까지는 양자가 동일한 개념이었으나, 헤겔에게서 분리됨. 헤겔은 '도덕(Tugend)'을 개인적 차원의 규범을 지칭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윤리(Sittlichkeit)'는 사회적 차원의 규범을 의미하는 사용하였다.

3. 윤리학의 주요 두 개념과 그에 따른 윤리론이 구분

: 옳음(the right, 정의)/좋음(the good, 선)

3.1 목적주의

1) 기본입장: 좋음을 옳음과는 상관없이 규정하고 옳음은 그 좋음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보는 입

장.

2) 목적주의의 종류: 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 탁월성을 실현하는 것이 선이다: 완전설(perfectionism) 예) 아리스토텔레스- 탁월성은 각자의 덕(훌륭함, arete)을 최상으로 실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선이다.

- 선을 쾌락으로 규정: 쾌락주의

- 선을 행복으로 규정: 행복주의

- 선을 여러 가지로 상정할 경우: 다원론적 목적주의

3) 대체로 그리스적 전통에 속하며, 최근에는 영국의 공리주의자에 의해 대변됨.

4) 목적주의의 타당성: 강한 호소력을 갖는 이유는 합리성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합리성이란 선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목적주의의 문제점

- 전제되는 선이 우리의 신중한 모든 도덕판단이나 윤리적 신념을 해명해 줄 만큼 포괄적인 정합성을 갖는 윤리체계를 구성하는 일

- 전제되는 선이 극대화의 원리를 가동시켜 현실의 지도 원리가 될 만큼 충분히 객관적인 가측성과 계산 가능성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

⇒ 포괄적인 정합성과 계산 가능성은 양립하기 어렵다.

3.2 의무주의

1) 기본입장: 옳음과 상관없이 좋음을 규정하지도 않으며, 더욱이 옳음을 좋음의 그대화로 생각하지도 않는 입장.

2) 특징

- 목적이나 선에 비해 의무나 정당성이 우선시 되며, 옳음을 위반하는 것은 무엇이든 무가치한 것으로 판단됨.

- 옳음의 원칙 혹은 의무의 체계가 선행하고 그에 따라 가치있는 선의 한계가 설정됨.

- 옳음은 보다 근본적이고 환원불가능.

- 직관주의적 성격: 의무는 다른 것과 비교하여 유추되거나 추론되거나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절대 가치를 갖는 것이다.

- 대체로 히브리적 전통에서 유래/ 모세의 율법/ 현대에는 20세기에 옥스퍼드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윤리학자(H.A. Prichard, W. D. Ross 등)들에 의해 다시 주장됨.

3) 의무주의의 긍정성

- 도덕적 직각에 주어지는 자료의 기반에서 출발하는 까닭에 우리의 숙고된 도덕판단이나 윤리적 신념에 충실하다.

4) 의무주의의 문제점

- 전제된 도덕적 판단들 간의 위계관계를 확립해 줄 기준이 불투명하다. 예)안네 프랑크
- 도덕적 직관 그 자체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 당면한 도덕적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행위나 판단들이 어떻게 정당화(혹은 부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직관에 의존하는 것 외에 다른 일정한 규칙이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

4. 사회윤리
- 개인의 선과 공공의 선에 대한 원리나 규칙이 다르다는 자각에서 구분됨.
1) 최초의 문제제기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각자에게 그 자신의 몫을” 분배하는 것이 ‘정의(justice)'라고 함.
- 분배의 문제가 공공선의 문제로 제기됨.
- 산술적 평균에 따른 분배와 비례적 균등에 따른 분배의 문제를 거론함.
2) 분배 윤리와 관련한 대표적 철학자
- K. Marx: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부도덕한 분배 구조에 대해 비판함.
- J. Rawls: 절차론적 정의론을 제안
3) 분배 정의에 대한 기본 입장들
- 자유주의: 노력에 따른 분배
- 평등주의: 필요에 따른 분배
- 수정주의: 서구의 복지정책
- 절차주의: 존 롤즈(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제안함)/도박의 예를 듬.

5. 윤리론의 변천
5.1 형이상학적 윤리설
- 자연과 규범, 존재(being)와 당위(ought to)가 분리되지 않음.
- 인간의 도덕적 규범의 정당성을 형이상학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설명함.
* 그러므로 이 윤리설의 성패는 형이상학적 세계관의 타당성 여부에 의존.
- 고대: 자연법이 곧 도덕법.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학파 등이 속함.
- 중세: 신법에 의해 자연법과 도덕법이 정초됨.
예)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us): 스토아 학파를 따라 영원법(lex aeterna), 자 연법, 인정법을 구분하였지만, 영원법의 내용이 신의 불변하는 창조 질서로 이 해되었다. 자연법과 인정법은 오직 영원법에서 도출되는 한에서만 타당하다고 생각함.

5.2 자연주의 윤리설

- 사실과 관찰에 의한 검증을 중요시 하는 근대적 관점.
- 자기보존(conatus)의 원리가 윤리론의 근본 관점으로 도입.
- 홉스, 로크 등의 사회계약론자와 더불어 등장.
- 이성적인 것이 선한 것//신적인 것(자연적인 것)이 선한 것이 아니다.
- 인간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기준: 그 행위가 얼마만큼 인간의 자기 행복과 욕구를 증대시켜 주었느냐?
- 쾌락주의나 행복주의, 공리주의 윤리설이 이에 해당.

5.3 정감주의 윤리설(emotivism)
- 논리실증주의가 표방한 자연주의 윤리설의 한 형태.
- 윤리학의 학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 윤리적 회의론으로 귀착됨.
- 학문적 대상이 될 수 있는 명제(판단)은 분석판단이거나 종합판단이어야 하는데, 윤리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이상학적 윤리설과 자연주의 윤리설 모두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
※ 자연주의적 오류(G.E.Moore)
형이상학적 윤리설은 검증되지 않은 형이상학적 세계에 근거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고, 자연주의 윤리설은 가치어(당위 또는 감정)를 비가치어(사실)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5.4 의무론적 윤리설
⇒ '비판적 윤리설'이라고도 할 수 있음.
- 헤겔에 의해 개인의 내면의 윤리론이라고 비판받음.
* 헤겔은 윤리는 결국 '인륜성(사회적 제도나 법률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
* 하지만 헤겔의 관점도 지나치게 이성만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여 막스 쉘러는 '감정의 윤리론'을 옹호.
* I. 칸트의 <순수 실천 이성의 법칙(정언명령=무조건적인 명령)>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자연법칙의 법식>
- "네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를 통하여 보편적인 자연법칙이 되어야 하는 듯이 행위하라.
<목적의 법칙>
- "너는 너 자신의 인격에 있어서건 도는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건 인간성을 단순히 수단으로서만 사용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행위하라"
-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 목적의 왕국에서 입법적 성원인 것처럼 행위하라."

5.5 담론의 윤리학

- 형이상학적으로 상정된 이성적 주체의 내면적 결단(예를 들어 칸트의 '선의지')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감정에 호소하는 윤리학(예를 들어 쉘러의 감정의 윤리학)에 대해서도 그것이 주관적이라는 의미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함.
- 이성적(의사소통적) 주체들 간의 합리적 대화를 통해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 J. 하버마스가 대표적이다.

※ 공리주의

* 벤담 [Bentham, Jeremy, 1748.2.15~1832.6.6]

1748년 2월 15일 런던에서 출생하였다. 변호사를 하다가 나중에 민간연구자가 되었다.

* 벤담 공리주의의 기본 주장

1. 인생의 목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실현에 있다.
2. 쾌락을 조장하고 고통을 방지하는 능력이야말로 모든 도덕과 입법의 기초원리라고 주장.

* 쾌락의 계산법

쾌락(플러스)과 고통(마이너스)을 강도·계속성·확실성·원근성(遠近性)·생산성·순수성·연장성(延長性)이라는 7개의 척도를 써서 수량적으로 산출하려고 하였다.

* 문제점

- 쾌락을 계산 가능하다고 봄.
- 양적인 쾌락과 질적인 쾌락/감각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에 대한 구분이 모호
- 스펜서의 평: "돼지의 철학"

※ J. S. Mill의 공리주의

약력: 1806-1873, 벤담의 친구였으며, James Mill의 아들로 태어나, 천재교육을 받았다.

(1) 쾌락 혹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가 인생의 목적으로서 유일하게 바람직한 것이며 다른 것들도 결국 쾌락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서만 바람직한 것이다.

⇒ 쾌락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 쾌락주의: 이 점에서 벤담이나 에피쿠로스와 일치한다.

(2)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구분함.

- 정신적.지성적 쾌락/육체적.감각적 쾌락

- 쾌락의 양만을 늘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낮은 쾌락을 피하고 높은 쾌락을 추구.

⇒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에 대해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

(3) 쾌락의 질적 차이를 가름하는 기준은?

- 이 점에 대해 밀은 불투명하다. 직관력에 호소해야 한다.

예) 고전음악이 주는 쾌락의 강도가 50이고, 대중음악이 주는 쾌락의 강도가 100이라 할 때 밀은 고전음악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인데, 이 경우 고전음악이 대중음악에 비해 반드시 더 우월한 쾌락이라고 할 수 있는가?

※ 공리주의의 여러 형태와 한계

1. 선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쾌락 공리주의/ 이상 공리주의
2. 선을 결과하고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행위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
3. 최대의 선을 어떤 기준과 관점에 따라 산출할 것인가: 전체 공리주의/ 평균 공리주의

※ 쾌락 공리주의/이상 공리주의

J. Bentham: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이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극소화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주장.

G. E. Moore: 행위는 결과의 쾌락이나 행복의 양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산출되는 다양한 본래적인 여러 가지 선 혹은 이상적인 여러 가치의 총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① 벤담류의 쾌락 공리주의가 내세우는 근거

가. 개인에 있어서나 집단에 있어서 의사 결정이 어려운 것은 그들이 갖는 무수한 욕구나 목적들이 서로 충돌할 경우 그것을 조정, 해결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 이러한 다양한 목적들의 우열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인생 계획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모든 다른 욕구나 목적에 우선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욕구 또는 지배적 목적이 설정되어야 한다.

나. 이러한 지배적 목적은 인간적인 여러 가치에 배치되지 않고 우리의 도덕감이 용납하는 한에서 객관적인 계량의 가능성을 지니는 것이어야 한다.

⇒ 쾌락 공리주의자들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배적 목적을 쾌락(pleasure)이라고 생각한다.

* 반증례

약속의 이행: 약속의 이행은 그 자체로 도덕적이 정당하다. 하지만 쾌락 공리주의에 따른다면, 자신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므로 약속을 어길 경우, 쾌락이 증대된다면, 약속을 어길 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무죄자 처벌: 예를 들어 중세의 마녀 사냥과 같이 그 사회 구성원 전체 혹은 개인의 쾌락의 증대를 위해 무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② 무어류의 이상 공리주의

가. 평가대상인 행위(어떤 행위가 공리에 적합한가? 쾌락 공리주의의 경우 공리가 쾌락의 증대로 환원되므로, 어떤 행위가 쾌락을 증대시키는가? 하는 것이 평가 대상이 됨)보다 는 평가내용인 선의 개념(무엇이 보다 가치있는 행위인가? 또는 보다 가치있는(바람직 한) 결과를 도출하는가?)을 검토하여 확장하는 방향을 선택함.
나. 이상 공리주의 역시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공리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쾌락 공리주의 자들처럼 공리를 쾌락에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출되는 본래적 여러 선이나 가치들 로 보는 입장을 채택함.
다. 제기되는 문제: 무엇이 본래적인 선 또는 가치인가? 달리 묻는다면, “더 이상 어떤 다른 뒤따르는 결과가 없이 그것만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하는 것이 결정되어야 한다.
라. 문제점
- 선(본래적 가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직관의 영역을 과도하게 허용하는 까닭에 공리 계 산의 문제를 애매하게 한다.
- 본래적 가치들 간의 상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이 우선성을 판정하는 기준이 또 다시 필요해 진다.
마. 예상되는 답변
이상 공리주의 역시 공리주의인 한, 가치들의 충돌을 해결하는 기준으로 공리성을 내세 울 것이다. 그러나 공리성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예1) 막가파: 타인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예2)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단지 도둑질이 아닌 강도짓을 한다.

※ 미학(예술철학)의 근본 문제

1. 미학(Aesthetics) 또는 예술철학(Philosophy of Art)

1) 본래적 의미의 에스테틱은 이성학(논리학:사고에 의해 파악되는 세계 및 사고의 근본규칙에 관한 학)인 로기카(logica)에 상응하는 감성학이다. 따라서 감성에 의해 파악되는 세계 및 감성의 근본 규칙에 관한 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감성은 근본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학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감성으로 파악되는 것 중에서 아름다움(kalos/pulchrum)에 관해서만큼은 보편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에스테틱은 미학이 된다.

3)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기술(techne), 그것이 예술이다. 그러므로 에스테틱과 예술철학은 공유하는 학문 영역이다. 하지만 후자는 예술활동과 보다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경험학적인 성격(예술학/예술비평)이 강하고, 전자는 보다 전통적인 철학(인식론/존재론)의 성격이 강하다.

cf) 예술학: 예술활동 일체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그 의미나 의의를 찾고자 하는 학문

예술비평: 예술작품 및 그와 수반된 일련의 활동들에 대해 미추, 선악, 장단을 평가하는 활동

2. 미학의 근본 개념

- 미(the beautiful), 미적인/감성적인(aesthetic), 숭고(sublime) 등.
- 서양철학에 있어서 최고 류/가치: verum(진) bonum(선) pulchrum(미)

- 오늘날 영어의 beautiful은 bonum에서 변형된 것

4. 미학의 근본 문제들

1) 현상과 실재/오류와 진리

가. 예술은 가상을 만든다?: 피그말리온의 신화/8등신

나. 과학은 실재를 기술한다?

* 다음은 영화 <매트릭스> 1편에 나오는 대사이다.

neo: This isn't real?
Morpheus: What is real? How do you define real? If you're talking about your sense, what you feel, taste, smell, or see, then all you're talking about are electrical signals interpreted by your brain.

네오: 이게 실재입니까?
몰피어스: 무엇이 실재인가? 너는 어떻게 실재를 어떻게 정의하지? 만약 네가 말하는 실재가 너의 감각 그러니까 네가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네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단지 너의 뇌에 의해 해석되는 전기신호일 뿐이야...

이 대사는 우리가 실재한다고 알고 있는 이 세계가 사실은 우리들의 인지방식에 따른 구성물(허구)에 불과함을 암시하고 있다.

라. 다시 생각해 보는 가상(illusion/virtuality)과 실재(reality)란 무엇인가?

우리는 '실재'를 '우리의 의식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묘사(기술)하되, 예술은 거짓되게 묘사하고 과학은 참되게 묘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예술은 주관적일 뿐이고 과학은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자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것'을 정말로 본 일이 있는가?

만약 예술과 과학이 모두 실재의 한 국면 또는 한 층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양자는 모두 가상을 말하면서 또 동시에 진리를 말하는 셈이 된다. 다만 예술은 개별적이고 일회적인 사태를 주로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그리고 주로 시각화의 과정을 거침으로써(이는 음악이나 문학에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실재의 한 국면을 보여주는데 반해, 과학은 반복적이고 사태들의 공통성을 이성적· 논리적 설명(해석)을 위해 고도로 개념화된 상징체계를 사용하여 실재의 한 국면을 보여준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마. 세계와 세계질서의 기원에 대한 관심:

① 이론적 관점: 세계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모종의 질서, 즉 가지성(可知性)을 가진 것이면, 이러

한 가지성은 이성(사유)으로 이해된다. 오늘날 이런 이성의 대표적인 형태가 수학과 물리학이다. 즉 논리성에 기반한다.

② 미학적 관점: 세계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모종의 질서의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 질서는 미적인 아름다움이나 조화를 가진 것임에 틀림없다. cf) 칸트의 합목적성

- 경험적 관찰과 대담한 가설(피타고라스): 세계는 수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음악적인 하모니와도 유사하다. 예) 1:2는 8도 음정, 2:3은 5도 음정, 3:4는 4도 음정, 태양계의 음악을 우주의 음악으로 묘사

※ 결국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에 대해 음악적 조화(수적 조화)라는 대담한 가설을 적용시킨 것이다.

바. 진리와 예술의 관계

-전통적으로는 진리는 예술에 의해 표현될 수는 없지만, 예술에 의해 표현된 것이 진리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예술적 상상력이 이성이나 논리보다 더 진리를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2) 그 밖에 중요한 미학적 문제들

(1) 미와 도덕의 관계

-플라톤: 진선미는 궁극적으로 하나다. 미는 선의 감성적 현현이다.

cf) Kant: 미는 도덕성의 상징

: 플라톤의 이 입장은 후대에 미와 예술에 대한 고전주의의 원형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 미와 도덕은 분리될 수 있다. 불쾌하고 부도덕한 내용을 가진 작품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예술이 될 수 있다.

- 낭만주의: 미가 모든 것의 최고의 시금석이다

** 화두: 선해야 아름다운 것인가/아름다운 것이 선한 것인가?

(2) 주관주의/객관주의

- 미에 대한 관념의 변화로 대신 정리

(3) 예술과 목적/쾌의 관계

- 예술은 자기충족적 활동인가 아니면 외적 목적을 위한 수단활동인가?
- 고도의 테크놀로지(지성/이성의 활동과 그 결과)인가 아니면 감성과 상상력의 산물인가?
- 예술 또는 미가 주는 쾌는 감각에 만족을 주는 것인가 정신에 만족을 주는 것인가?

(4) 미와 예술의 자율성 문제

미/예술은 도덕과 진리에 의존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 각기 다른 존재원리나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독자적이고 고유한 영역인가 아닌가?

예1) 예술의 검열 기준 도덕성이 제기되는 경우: 중학교 미술교사, 거짓말 등등

예2) 예술의 비평 기준으로 진리성이 제기되는 경우: 디워-스토리 구성이 엉망이다.

5. 미에 대한 관념의 변화(『미학적 인간』 중에서)

1) 고대인(객관성의 표현): 미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절대적 객관성)이며, 작품은 그 미를 모방하는 것. 미는 발견되는 것. 그러므로 예술가는 창조자가 아니라 발견자이다.

2) 근대인(주관성의 표현): 미는 단지 인식하는 주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 그러나 객관성 혹은 세계와 반드시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 예) 칸트: 미는 상상력에 의한 것(주관성)이지만 목적론적 세계라는 이념(객관성-상호주관성)에 부합하고 있다.

그래서 미는 이성, 감성, 혹은 상상력에 토대를 둔다고 주장하면서도 예술작품은 어떤 특정한 형태의 객관성과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짐-예) 취미의 보편성에 대한 주장

예술가는 고대와 마찬가지로 발견자이다.

3) 현대인(개인성의 표현): 무한할 정도로 다양한 스타일만이 존재한다. 미도 주관적이고 예술작품도 주관적이다. 하지만 이들은 주관적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적이라고 표현한다. "작품이란 예술가 자신에 의해 정의되고, 이때 그것은 예술가 자신의 연장으로서, 특별히 공들여 만든 일종의 명함 같은 것이다." 특이성의 숭배, 독창성의 숭배

예) 니체 『권력에의 의지』 중에서, "그 자체로 순수한 사실적 사태란 없으며, 단지 여러 해석들만이 있을 뿐이다. 또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무한히 많은 세계들이 있는 것이고 이 세계는 살아있는 개인의 여러 관점일 뿐이라는 것이다.....이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언제나 실상 '이것이 나에 대하여 무엇인가?'라는 물음이다."